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청와대

Contents

목차

- 04 대통령 소개 및 이력
- 06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사
- 14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 15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갑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 16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
- 18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20 문화예술 지원,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 22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 24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26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28 사라진 꿈의 회복,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니다

필리조선소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

30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32 국정과제

34 K-Heritage, 고귀한 전통의 계승

35 K-Culture, 세계를 향한 창조적 올림

36 대한민국 개요



대통령 소개 및 이력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래는
과거보다 낫고, 현재보다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개인 정보

성명 | 이재명 (李在明)

생년월일 | 1964년 12월 22일

가족 | 김혜경 여사, 2남

종교 | 기독교

학력

1978.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0.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2.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1989 법률사무소 개업, 변호사 개업
198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90~1994 이천노동법률상담소 및
 광주노동법률상담소 소장
1994~2005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10~2018 성남시장 (민선 5기, 6기)
2018~2021 경기도지사 (민선 7기)
2022~2025 제21, 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2022~2025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 대한민국 대통령

저서

2018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2022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2022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2025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은 희망과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공장의 소년 노동자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그의 여정은 진정성과 공감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갈망하는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노동인권변호사
활동, 그리고 진보적 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는 평등과 기회,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그의 비전은 정의·기회·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재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향한 그의 여정은
남다른 의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6년 삼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남시로
이주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3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연령에 미치지 못해 정식 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 환경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배움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독학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1986년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23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부나
권력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상담소, 반부패 활동 등 시민 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성남 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다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성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진보적이고 복지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2025년까지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민들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으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등산·바둑·낚시·산책을 즐깁니다.
열렬한 독서광이기도 한 그는
인생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라는
좌우명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사

2025. 6.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영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릭스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고,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숭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2025. 6. 11.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갑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2025. 6. 21.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

2025. 6. 25.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25. 6. 26.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문화예술 지원,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2025. 6. 30.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서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계도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생계와 창작 사이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창작에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입니다.
먹고사는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 7. 3.



사진: 대통령실 제공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균전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2025. 8. 15.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진: 대통령실 제공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인정합니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서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같고 닮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2025. 8. 26.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강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라진 꿈의 회복,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냄시다

필리조선소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하

2025. 8. 27.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 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MASGA(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5. 9. 23.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정과제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 확립으로 '통합을 위한 정치' 실현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의 시대' 실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3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 국가'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4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전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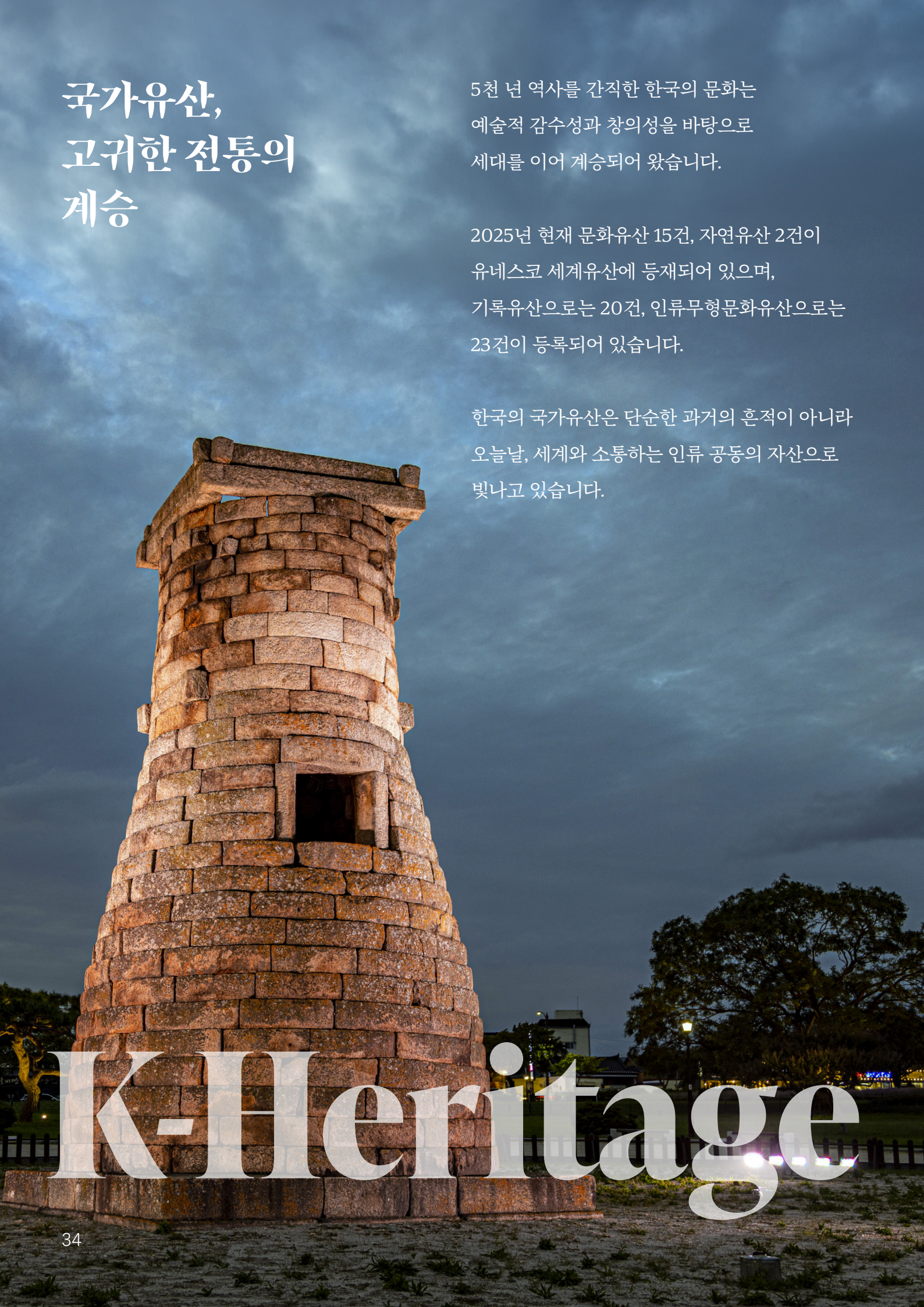


국가유산, 고귀한 전통의 계승

5천 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의 문화는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 계승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기록유산으로는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2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와 소통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K-Heritage

세계를 향한 창조적 울림

K-Culture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K-pop은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무대를 열고,
영화와 드라마는 깊이 있는 스토리와 연출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음식과 뷰티는 다채로운 맛과 높은 품질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Culture는 유행을 넘어,
한국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Culture

대한민국

개요

국가명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
지리적 위치	한반도 위도 33°~43° 경도 124°~132°
국토 면적	100,459km ² (전체 한반도 면적 223,404km ²)
인구	5,168만 명 (2025년 7월 기준)
공용어	한국어
공식 문자	한글
통화	원 (KRW)
국가 상징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국화 무궁화



대한민국전도



태극기



무궁화

